

손님들 입맛 맞추다보니 '비법' 생겨

각종 무기질 풍부, 환절기 입맛 당겨 ... 군청 김창래 군정홍보담당 추천

추천! 고성지역 맛집 기행 ④ 추어탕전문점 '비목'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모처럼 따뜻한 기온과 청명한 날씨가 주위로 오므라들었던 몸을 느슨하게 만든다. 두툼한 외투가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얼음이 녹듯 몸이 나른해져오니 배가 고프데도 입맛 당기는 음식이 없다.

입맛을 당겨주고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음식을 파는 맛집은 없을까 생각하던 중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김창래 군정홍보담당이 공무원들이 많이 찾는 간성을 장신리 '비목' 추어탕집을 추천했다

고성 8미에 들어가는 추어탕은 위장에 전혀 무리를 주지 않아 아

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없어 소화 가 잘 되고, 입맛이 없을 때 구미를 당기게 하는 별미다.

미꾸라지를 내장까지 통째로 넣고 끓이는 추어탕은 갈슘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각종 무기질 등이 함유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 고단위 영양제를 먹는 것과 다름없다. 또 소화에 부담 없으면서도 입맛을 살려준다.

식당 입구에 들어서니 원두막과 마당이 보였고, 식당도 전형적인 시골집 풍경을 갖춰 토속음식인 추어탕과 조화를 이루었다.

추어탕을 주문하자 일반 식당에서 뚝배기로 나오는 것과 달리

추어탕이 한가득 담긴 냄비와 양푼 그리고 동치미, 튀김 등 밑반찬이 나왔다.

팔팔 끓인 추어탕을 양푼에 덜어 청양고추와 초피가루를 넣은 후 맛을 보았다. 몹지도 걸쭉하지도 않은 국물 맛은 입에 착착 감겼고, 코끝을 맴도는 향긋한 초피가루 향은 추어탕의 맛을 한층 더 가미시켰다. 또한 아삭한 무와 시원한 국물이 어우러진 동치미는 맛의 절묘한 공합을 이뤘다.

밥 한 공기를 금방 비우고 서브스로 나온 부드러운 면 까지 넣어 먹었더니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배가 부르는데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숟가락을 놓으려고 해도 무슨 중독성분이 있는 약을 넣었는지 숟가락질은 계속되었고 뱀비를 다 비우고 나서야 멈췄다.

숨을 못 쉴 정도로 배가 불렀지만 속이 거북하지는 않았다. 추어탕은 큰 건더기 없이 국물이라 소화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비목의 노양이 대표(52세, 여)에게 추어탕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을 묻자 그녀는 "비법이 따로 있으나,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연구로 음식을 만들다보니 손님들이 알아주지 시



팔팔 끓인 추어탕을 양푼에 덜어 청양고추와 초피가루를 넣은 후 맛을 보면 몹지도 걸쭉하지도 않은 국물 맛은 입에 착착 감긴다.

작한 것이 전부예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추어탕은 오래 끓일수록 맛있다고 했다.

18년째 비목을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남편이 인근 계곡에서 미꾸라지를 잡아와 추어탕을 끓여 친구들에게 대접했던 것이 계기가 돼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 친구들이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 추어탕 집을 하기 시작했는데, 간간한 손님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하다보니, 그게 비법이 되었

고 어느 순간부터 단골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음식은 이론보다 시행착오를 겪는 연구와 실험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미꾸라지, 고추장, 마늘, 부추 등 4가지의 재료를 넣고 끓이는 비목 식당 추어탕의 비법은 결국 정성과 노력이었다. 정성과 노력으로 끓인 추어탕으로 배를 채웠더니 금세 기운이 솟는다.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밤 9시. <681-4107> 원광연 기자

본지가 임진년 새해부터 기획보도하고 있는 '추천! 고성지역 맛집 기행'에 소개되기를 바라는 맛집을 추천받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 : 원광연 기자 ☎681-1666, 010-5379-0890



취약계층 일자리 참가자 105명 모집

지역공동체일자리 95명, 공공근로사업 10명 ... 22일 접수 마감

고성군은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지원해 지속가능한 소득증대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지역공동체일자리 및 공공근로사업 참가자로 총 105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3월 사업 80명, 5월 사업 15명 등 총 95명을 선발한다.

3월 사업은 스킨존 어린이 안전관리, 담쟁이 식재사업, 해양심층수 실증시험, 천연 잔디구장 관리, 마을 소공원조성 등 7개 사업으로 3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사업에 투입된다.

5월 사업은 외래식물 구제사업, 송지호 오토캠핑장관리 등 3개 사업으로 5월 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사업에 투입된다.

공공근로사업은 10명을 선발하여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두 사업 모두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억3천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 총무팀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로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최명호 기자

고성군 산림조합 장학금 전달

고성군산림조합(조합장 김일웅)은 지난 17일 오전 10시30분 조합 3층 회의실에서 임직원과 조합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인재 육성 및 조합원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우수한 조합원 자녀 고등학생 6명과 대학생 3명에게 총 48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김일웅 조합장은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라는 새로운 비전을 갖고 조합원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고성신협 제40차 정기총회

고성신협(조합장 전연표)은 지난 16일 고성군문화원에서 임직원 및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4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원광연 기자

